

# 전주시, 우수 인문전공자 키운다

### 문체부 양성·과건사업에 8명 선정... 국가예산 8000만원 지원

전주시가 지역 내 인문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주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인문활동가 양성 파견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주지역에서는 8명의 인문활동가들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문 분야의 미취업 석·박사급 인력을 지자체의 문화시설과 동아리 등에 파견해 교육 및 강연, 인문프로그램 기획, 연구 등 다양한 인문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에서는 교육전수자 3명과 촉진소통자 3명, 연구개발자 2명 등 총 8명의 인문활동가가 최종 선발됐으며, 시는 8,000만원의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이들의 인문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인문학 전공 석·박사인 교육전수자들은 강연 경험을 살려 효도도서관에서 '문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페미니즘 교실'을 운영하고, 우진문화공간에서는 △회콕이 있는 수요낭독회 △내 생애 첫 희곡쓰기 △뮤지컬 인문학 △10분 드라마 메이킹(Making) 강연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도시재생 활동과 인문학을 융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전통문화연구소의 '전주 한옥마을 골목길 이야기', 인문공간 파사주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읽기', 완산도서관의 '우리집 풍수인테리어 그 속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동아리를 각각 운영한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 골목길 이야기'는 한옥마을에 20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과 함께 상업화되기 전 토속적인 한옥마을의 옛 모습을 기록하려는 동아리 모임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나머지 2명의 연구개발자들은 '인문정신 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역할'

라는 주제로 지역 내 인문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내년도 인문활동가의 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유치한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문전공자들이 지역에 기반을 잡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매년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을 유지해 전주시민의 다양한 인문학 욕구를 충족하고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http://lib.jonju.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담당 인문활동가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맛깔스런 김장김치, 한부모가정에**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100세대에 전달됐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100세대에 전달됐다.

## 만성지구 입주학생 통학불편 해소 '합심'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 1일 예코시티 공동주택 개발시행사와 예코시티 입주할 중학생을 위한 통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2일 전주의 또 다른 개발지구인 만성개발지구 입주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만성지구 공동주택개발시행사와 각 공동주택별 입주인 대표자들과 함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공동주택입주

시기와 만성개발지구 초등학교(2019년 3월 예정) 및 중학교(2020년 3월 예정) 개교시기 불일치로 유입 학생들을 개교 전까지 초등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들은 물론 만성개발지구 입주 학생들의 경우 전주시 4학군내 중학교 등으로 배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학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만성개발지구 공동주택개발시행사들이 통학차량 운영

을 위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중학교는 덕진중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들은 물론 만성개발지구 입주 학생들의 경우 전주시 4학군내 중학교 등으로 배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학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만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들은 초등학교 통학지원뿐 아니라 중학교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인들의 불편 해소

를 위해 긍정적으로 통학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학차량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내달 초 만성지구 공동주택개발시행사 및 덕진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 할 계획이며 이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만성개발지구 입주할 초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 기자

## '착한' 고등학교 수업료... 10년째 동결

### 학부모 경제적 부담 최소화 내년부터 입학금도 면제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8학년도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입학금은 내년부터 면제이며 수업

료는 2008년 이후 10년째 동결이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읍·면·도서지역에 따라 3급지로 나뉘는데 전주, 군산, 익산 등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수업료가 1분기 31만8000원이다.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수업료는 분기별 25만500원, 읍지역은 24만6000원, 면지역은 22만500원이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지키는 아르바이트 확대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24일 중앙살림광장에서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거리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알바 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총 351개 사업장 중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알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나쁜 알바사업장을 표시한 박스를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좋은 알바 사업장을 늘리기 위한 전주시의 다짐을 약속하는 선풍기 식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상식 퀴즈와 알바 사연 응모 엽서 배부, 무료 노동 상담 등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효과를 높였다.

특히, 시는 수능이 끝난 후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에게 알바 등 단기일자리를 취업준비 노동권리로서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홍보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총 351개 사업장 중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알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거리홍보에 나선 김하얀 대학생 '좋은알바' 탐사단원은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인권권에 대해 잘 몰라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며 "사업주분들의 인식개선에 더불어 알바 근로자 스스로가 본인의 권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로 행복은 교육당사자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